

제3회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현장 ②-자제공덕회

한 사람의 손이 1000명을 움직인다



자제공덕회 자원봉사자들이 도시 내에 자리한 환경보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일이 색색으로 분리 수거된 단추, 플라스틱 생수병은 폴리스터 섬유로 된 담요와 의복 등으로 재활용돼 재난 지역에 보내진다. 자제공덕회는 또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 불교계이불 TV를 운영하고 있다.

자제공덕회는 대만에서 규모가 가장 큰 민간자선 기구로 전 세계에 지부와 연락사무소를 갖고 있다. 33개국에 자제공덕회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으며 38 개 국가에 183개 지부가 있다. 자제공덕회 회원은 400여 만명에 이르며 2010년 예산만 해도 6000여 억원에 달한다.

자제공덕회의 가장 큰 특징은 '대나무 저금통'으로 대표된다. 바로 십시일반 불자들의 노력이다.

한해 예산이 6000억 원

5원씩 모은 저금통서 출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한 제3회 한국·대만불교문화교류에서 불교문화교류단은 4월 1일 자제공덕회 타이베이 환경보호센터와 4월 3일 하이렌시의 자제공덕회 정사정사와 자제종합병원을 찾았다.

불자 개개인의 노력 사회 변화를 이끈다.

'대나무 저금통'은 자제공덕회 전신인 불교극난극복자제공덕회 회원 30명이 매일 5원씩을 모았던 모금함이다. 한 사람의 손이 천 명을 움직인다(一手

動時千動)는 믿음으로 자선, 의료 등 8대 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자제공덕회의 원동력이다.

현재 대만 6개 도시에 설립돼 있고 세계 4대 골수병원으로 손꼽히는 자제병원. 이 자제병원의 설립 당시 한 일본교포 목사가의 거액 후원을 증업 스님이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거절 사유는 놀랍다. 바로 십시일반 불자들의 공덕을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뜻 때문이었다. 지금도 자제공덕회는 정부예산 및 거액 후원을 배제하고 소액 보시의 생활화로 기금을 모으고 있다.

또 정사정사의 스님들은 수공업 등의 경제활동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공덕회 자제위원들은 자원봉사로 자제공덕회의 각 사업을 운영한다. 승가의 재정 자립과 재가의 사회활동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독특한 재원 마련은 투명성으로 이어진다. 자제공덕회의 모든 경비는 특정 후원이 아닌 순수 민간자금으로 운용되고 또 그 후원자들이 봉사자로 집행하기 때문에 기부·보시금을 가장 잘 감사하게 된다. 후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 세계 400만 후원의 회원에게 사용내역이 공개되며 이는 국내외 대중들의 신뢰와 지지로 이어졌다.

자제공덕회는 이런 바탕하에 40여 년 동안 자선사업을 필두로 의료, 교육, 인문 사회 분야에 있어서 사

회 영향력을 발전시켰다.

자·비·희·사(慈悲喜捨)는 자제공덕회 사회사업의 실천이념으로 '자'는 자선과 국제구호, '비'는 의료와 골수기증, '희'는 문화와 지역사회사업, '사'는 교육과 환경보전사업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선, 의료, 교육, 인문 4대 사업은 연결고리를 이루며 서로 보완 발전했다. 그 외에도 골수기증, 환경보호, 지역사회복지, 국제구호사업 등 8개 복지사업

노력·자원봉사 등 생활화

투명 재정 관리로 회원 증대

을 동시에 추진해 이를 '한걸음 여덟 발자국'이라고 칭했다.

시신기증의 활성화, 세계4대 골수병원 토대

하이렌시 자제종합병원 로비에는 '불타문병도(佛陀問病圖)'가 자리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병자를 위문하는 모습이 새겨진 타일벽화로 1972년 빈민무료진료소를 설치로 의료사업을 시작한 자제공덕회 정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986년 하이렌시에 병상 800개 규모로 개원한 자

제종합병원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

자제공덕회는 남하원 옥리분원, 태동분원 등 대만 전역에 6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동부산악 지역에만 병원을 건립하고 있는 자제공덕회는 이 지역 35만 명의 의료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

이는 증업 스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스님은 1963년 '인간불교'를 제창한 대만 불교계의 최고 원로 인순(印順:태허) 대사의 가르침을 받아 1966년 하이렌을 찾았고 지역 진료소에 큰 깨달음을 얻는다.

한 원주민 임산부가 난산으로 왔다가 의료비와 보증금이 없어 다시 들것에 실려 결국 길에 태이를 낳은 것을 보고 스님은 생명 존중사상을 펼친다.

스님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고통과 재난을 구해주듯 자비심을 가진 500인이 각처에 흩어져 원력을 다하면 한 분의 천수 관세음보살을 중생의 모습으로 살려내는 것이란 원력에 병원을 건립한다.

이 같은 생명존중 사상은 자제공덕회가 운영하는 교육사업 전반에 투영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자제공덕회는 94년 개교한 자제의학원을 2000년에 인문사회, 생명과학, 교육, 의학 등 4개 단과대학으로 확대해 4년제 정규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인문학과 생명학 중심 대학으로 특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제공덕회 회원들은 사후 시신 기증을 생활화하고 있다. 이는 자제병원이 세계 4대 골수 수술 병원으로 자리하게 된 원동력이 됐다.

자제대학 의학교과과정은 '계용의식(啓用儀式)'이란 과정이 있는데 바로 시신기증자의 뜻을 기리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교과과정이다. 해부실습을 하기 전에 학생들은 유가족을 방문하고 학생들은 고인의 행적을 조사해 프로필을 직접 작성한 뒤, 스님·교수·학생 등이 참여하는 계용의식을 치른다.

생명 존중 사상을 시신을 기증하는 이, 수술을 집도하는 이, 수술을 받는 이가 모두 실천하는 것이다.

현지 토착화 끊임없는 관심 자제인 만들기

자제공덕회의 또 다른 특징은 현지 토착화로 '자제정신'을 전파한다는 점이다. 자제공덕회는 태풍, 지진, 수해, 교통사고 등의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제인을 긴급 동원하고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투입해 재해지역으로 가서 도움을 준다. 현지 언론에서는 자제공덕회의 이런 모습을 '푸른 옷의 천사'로 부르기도 한다. 이 같은 노력은 이제만이 정착하고, 가정을 재건할 때까지 계속되며 끊임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로 이들을 다시 자제인으로 이끈다.

자제인은 현재 대만과 중국 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 몽골, 아프가니스탄, 체첸, 터키, 코트디부아르 및 동남아시아 중남미 각국에 불품, 의복, 집짓기 및 양로원, 아동복지원, 학교건립 등 구호사업을 펼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자제공덕회는?

자제공덕회는 1966년 증업(證嚴) 스님이 대만 하이렌(花蓮) 지방에 불교극난자제공덕회를 설립하며 시작됐다.

병원 건립자격을 얻기 위해 1980년 1월 16일 '재단법인 불교자제자선사업기금회'라는 이름으로 정식허가를 받았다. 1981년 다시 정부에 전국사단법인으로 등록해 1994년 인가를 받았다.

1999년 9·21 대만 대지진 때, 사랑의 거옥 2만 가구를 건립 기증하는 등 국내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985년 국의 각지에 거주하는 자제인이 자제사업을 해외로 확장시켜 현지의 사랑, 자원을 한데 모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1991년 방글라데시 허리케인 재난 구호사업을 시작으로 해외구호사업을 개시한 자제공덕회는 2011년 일본대지진 피해복구 등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 65개국에서 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98년에는 북한 통일기업과 합작해 북한 수재민 돕기에 70만 개의 동계 의류와 식료품, 우유 등을 기증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다.



색색 분리수거된 단추



시신 기증자 선양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나눔
- 불교도서전 개최

삶의 성찰과 치유의 불교명상CD

음첸팅 명상음악 (깊은 명상음악)

우주와 생명의 궁극적 소리 - '음' 첸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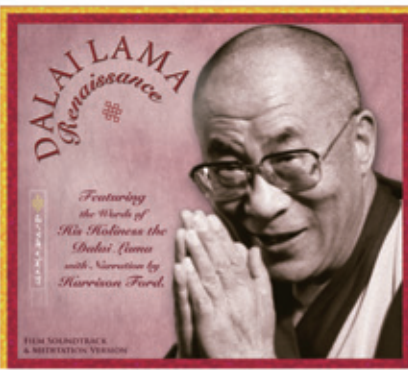


최근 전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깊은 명상'과 '요가 수련, 마음 치유와 휴식 음악'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14대 달라이 라마에 관해 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음반! 세계 12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영화 <달라이 라마 르네상스> 사운드트랙에 '명상용 버전'을 포함한 2CD 패키지로 2011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발매!



음악 속에는 달라이 라마가 구현하고자 하는 경험에서 우러난 지식과 우주의 진리가 녹아 있다. 불교의 창도에서부터 티베트, 인도, 이란, 아메리카 인디언의 명상적 사운드와 미국의 컨트리 음악에서 아프로-쿠반 리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이 지성 혹은 평화라는 하나의 컨셉으로 귀결된다. 14명의 세계 월드뮤직 및 명상음악 뮤지션들이 참여한 이 앨범은 신비하고 즐거우며, 가벼운 목상이나 명상을 위해서도 좋다.

2CD | 16,000원 | 콘텐츠코리아

팔상도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 부처님 일생을 8장면의 극적인 사건으로 표현한 불화 <팔상도>를 음악으로 그려낸 불교 국악 명상음악!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기념음반!



중요무형문화재 30호 김경기 선생님의 여창구음, 창작국악실내악단 슬기둥 단원이자 KBS 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중인 대금 연주자 한홍은, 그리고 해금의 대종화와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는 해금 연주자 강은일 등, 한국의 국악 및 인도의 전통민속악기 명연주자들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팔상도> 국악 명상음악 앨범! 부처님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다시없는 인생의 귀중한 나침반이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음악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참된 생애와 그 가르침을 시방세계에 널리 전한다.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음반출시 이래 <아마존>과 <아이튠즈> 뉴에이지/명상 차트 상위권 차지

1CD | 15,000원 | 콘텐츠코리아

